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3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2.

발 의 자 : 박주민·남인순·박홍배  
임오경·임미애·김한규  
서미화·김 윤·김남근  
백혜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7월, 아파트 정문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함. 피의자는 범행동기로 ‘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’, ‘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’ 등 망상 증세를 보였으나, 경찰은 피의자가 도검 소지 허가 신고를 할 때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지를 허가하였음.

현재 총포 소지 허가의 경우 신체검사서와 더불어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, 도검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 도검 등의 소지 허가 규제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·화약류 등의 경우에도 소지 허가를 신고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제출하도록하여, 소지 허가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, 신체,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12조).

법률 제 호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삭제하고,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)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1. ~ 3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제12조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>. <단서 삭제> <u>이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